

## ‘어깨동무’ 관련 자료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10~11쪽 |
| 제재명 | 어깨동무      | 지도서 | 3학년 48~49쪽 |

### 1. ‘어깨동무’ 오선 악보

자진모리장단 전래 동요 | 국립국악원

[주는소리] [받는소리]

1. 동 무 동 무 어 깨 동 무 어 디 든 지 같 이 가 고  
 2. 동 무 동 무 어 깨 동 무 해 도 달 도 따 라 오 고





동 무 동 무 어 깨 동 무 언 제 든 지 같 이 놀 고  
 동 무 동 무 어 깨 동 무 너 도 나 도 따 라 놀 고

### 2. 전래 동요

전래 동요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노래로, 단순한 음계의 가락과 리듬이 반복되며 문답 형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래 동요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놀이와 함께 지도하기에 좋은데,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하면서 리듬감과 신체 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노랫말을 통해 옛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향토 특유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표현 방법이 다양하고 그 시대의 모습과 장소를 느낄 수 있다.

### 3. 어깨동무 놀이 방법

2~4명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하고 진행한다. 동작은 두 박 단위로 바뀐다.

|   |  |   |   |  |   |  |  |   |   |   |  |
|---|--|---|---|--|---|--|--|---|---|---|--|
| 동   |  | 무 | 동   |  | 무 | 어  |  | 깨 | 동   | 무 |  |
| 동   |  | 무 | 동   |  | 무 | 어  |  | 깨 | 동   | 무 |  |
|  |  |   |  |  |   |  |  |   |  |   |  |
|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하여 한 박 단위로 몸을 두 번 기울인다.  |  |   |   |  |   | 몸의 중심을 왼쪽으로 하여 한 박 단위로 몸을 두 번 기울인다.  |  |   |   |   |  |

|  |   |  |   |  |   |   |  |   |   |   |  |
|--|---|--|---|--|---|---|--|---|---|---|--|
| 어  | 디 |  | 든 |  | 지 | 갈                                       |  | 이 | 가 | 고 |  |
| 언  | 제 |  | 든 |  | 지 | 갈                                       |  | 이 | 놀 | 고 |  |
|  |   |  |   |  |   |   |  |   |   |   |  |
| 오른쪽 다리로 몸의 중심을 잡고 한 박 단위로 몸을 앞으로 두 번 기울인다. |   |  |   |  |   | 왼쪽 다리로 몸의 중심을 잡고 한 박 단위로 몸을 두 번 뒤로 젖힌다. |  |   |   |   |  |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12~13쪽 |
| 제재명 | 음악의 기초    | 지도서 | 3학년 50~51쪽 |

## 3학년 참고 자료 127

##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의 연주 자세와 주법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16~17쪽 |
| 제재명 | 소풍        | 지도서 | 3학년 54~55쪽 |

### 1. 캐스터네츠

#### (1) 역사와 유래

캐스터네츠(Castanets)는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악기를 스페인으로 전해준 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무어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캐스터네츠가 밤나무로 재료가 바뀐 곳도 스페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것은 캐스터네츠를 뜻하는 Castañuelas(카스타누엘라)가 밤나무를 가리키는 스페인어 Castaño(카스타노)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 (2) 연주 자세와 주법

- 왼손 손바닥 위에 벌려진 쪽이 몸쪽으로 향하게 올려놓고 고무줄은 집게손가락 또는 가운데손가락에 끼운다.
- 왼손은 연주하기에 알맞도록 가슴 높이에 고정한다.
- 소리를 낼 때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으로 치는데, 강박의 경우 손뼉을 치듯이 치고 약박은 왼손 주먹을 살며시 쥐고 친다.



▲ 캐스터네츠 주법

### 2. 트라이앵글

#### (1) 역사와 유래

삼각형 모양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 트라이앵글(Triangle)은 고대 이집트의 타악기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초기의 트라이앵글에는 밑면에 3개 정도의 링이 달려 있어서 트라이앵글을 연주하면 이 링이 서로 부딪히며 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트라이앵글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때로는 크롬이나 은으로 도금되기도 한다.



#### (2) 연주 자세와 주법

- 트라이앵글은 한 손으로 쥐고 연주할 수도 있고 스탠드에 걸어 두고 연주할 수도 있다.
- 왼손 집게손가락을 악기의 고리에 걸고 왼손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으로 고리를 잡아 고정한다.
  - 오른손으로 채를 가볍게 쥐고 아랫변의 중앙부를 치거나 변의 바깥쪽을 가볍게 친다.
  - 줄이 너무 길면 악기가 불안정하여 빙글빙글 돌아가기 쉬우므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고리를 만들어 악기를 고정하고, 음의 길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트라이앵글 주법

## 리코더의 연주 자세와 주법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18~19쪽 |
| 제재명 | 왼손 운지법    | 지도서 | 3학년 56~57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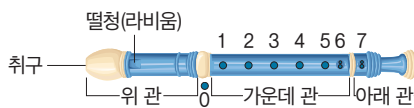
### 리코더의 이해

#### 1. 리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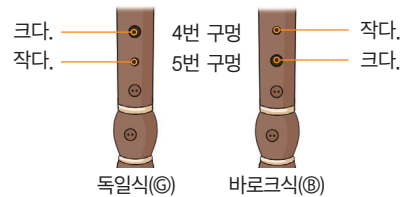
리코더는 나무의 종류(단풍나무 등)로 만들어 목관 악기로 분류된다. 14세기에 있었던 유사한 종류의 초기 악기를 개량한 것으로,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주 악기로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대부분은 알토 리코더(당시에는 ‘플루트’라고 칭함.)를 위하여 작곡되었고, 바흐와 헨델 등의 작곡가에 의해 수많은 리코더 작품이 발표되었다. 리코더가 오늘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1919년 영국의 악기 제조업자인 아널드 돌메치가 18세기 초 바로크 리코더를 개량한 것으로 이전보다 더 넓은 음역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음의 강약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 2. 리코더의 구조와 종류

리코더는 위 관, 가운데 관, 아래 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관에는 취구(바람을 넣는 부분)와 떨청(라비움)이 있으며, 가운데 관에는 0번부터 6번까지의 음공(소리 구멍)이 있고, 아래 관에는 7번 구멍이 있다. 6, 7번 구멍이 두 개씩인 것은 반음을 내기 위한 것이다. 리코더는 크기와 음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2옥타브 전후의 음역을 가지며 음역의 종류에 따라 C조 악기와 F조 악기가 있다. 운지 방식에 따라 독일식과 바로크식 두 종류로 나누는데 독일식은 교육용 개량 악기로 쉽게 운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바로크식은 전통 악기이다. 운지법이 조금 다르므로 학급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종류로 통일하는 것이 지도하기에 편리하다.



▲ 리코더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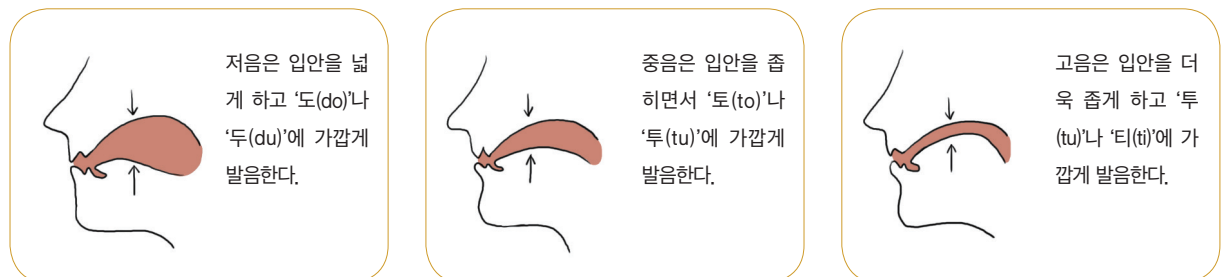


▲ 독일식(㉔)과 바로크식(㉕) 비교

출처 맥스 웨이드 매튜, “세계의 악기 백과사전”, (쥬교학사, 2004, 148~149쪽.

#### 3. 텅잉

텅잉(Tonguing) 주법이란, 취구로 들어가는 숨과 압력을 혀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관악기에서 그렇듯이 첫 음과 끝 음이 연주자의 혀(Tongue)에 따라 조절되며, 명확하게 소리 내고 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연주 기술이다.



▲ 저음

▲ 중음

▲ 고음

#### 4. 리코더 연주 자세



▲ 서서 연주할 때

- 양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서 몸의 중심을 잡는다.
- 머리를 똑바로 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 허리를 펴고 팔꿈치는 몸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다.
- 손가락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풀어준다.



▲ 앉아서 연주할 때

-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앉는다.
- 두 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 바닥에 댄다.
- 발은 바닥에 가볍게 붙여 중심을 잡는다.
- 손가락이나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다.

#### 5. 리코더 잡는 법

오른손 엄지는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의 중간 위치에 서 악기를 받쳐 준다.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조금 구부려서 손가락의 살집이 있는 부분으로 막는다.

새끼손가락이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아래 관을 조절한다.



뒷구멍은 왼손을 구부려서 손가락의 살집이 있는 부분으로 막는다.

왼손 가운데손가락을 조금 구부려서 손가락의 살집이 있는 부분으로 막는다.

쓰지 않는 새끼손가락을 악기 밑으로 넣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앞에 둔다.

▲ 리코더 잡는 법

#### 6. 입의 모양



▲ 바른 입 모양



▲ 틀린 입 모양

- 리코더를 아랫입술에 얹고 윗입술로 가볍게 악기 취구를 덮는다.
- 혀나 이가 취구에 닿지 않게 하며 너무 깊게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 7. 구멍을 막는 손가락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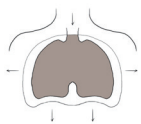


구멍을 막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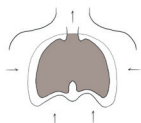
- 손가락의 살집이 많은 부분으로 막으며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손가락은 구멍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너무 가깝게 두지 않는다.

#### 8. 복식 호흡

배의 근육을 움직여서 횡격막을 신축시키며 하는 호흡 방식을 말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내쉴 때

-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몸에 힘을 뺀다.
- 폐에 있는 공기를 남기지 말고 모두 내쉰다.
-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듯이 서서히 숨을 들이마신다. 이때 배의 아랫부분(횡격막 아랫부분)이 사방으로 불어나도록 한다.
- 천천히 고르게 내쉰다.
-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일정하게 ‘스-’하는 소리를 내보면 내쉬는 호흡이 고른지 느낄 수 있다.

## 리코더 왼손 운지법 연습곡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18~19쪽 |
| 제재명 | 왼손 운지법    | 지도서 | 3학년 56~57쪽 |

### 1. 소년 한스

보통 빠르게

독일 민요

### ● 왼손 운지법 ●



솔



라



시



높은 도



높은 레

## 2. 환희의 송가

보통 빠르게

베토벤 작곡



\* 이 곡은 왼손 운지법 연습을 위하여 편곡하였습니다.

### ● 왼손 운지법 ●



솔



라



시



높은 도



높은 레



## ‘꼭꼭 숨어라’ 오선 악보와 소고의 연주 자세와 주법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20~21쪽 |
| 제재명 | 꼭꼭 숨어라    | 지도서 | 3학년 58~59쪽 |

### 1. ‘꼭꼭 숨어라’ 오선 악보

자진모리장단

전래 동요 | 국립국악원



꼭 꼭 숨 어 라 꼭 꼭 숨 어 라

1. 텃 발 에 도 안 된 다 상 추 씨 앓 뽕 는 다  
 꽃 발 에 도 안 된 다 꽃 모 중 을 뽕 는 다  
 을 타 리 도 안 된 다 호 박 순 을 뽕 는 다  
 2. 종 종 머 리 찾 앓 네 장 독 대 에 숨 었 네  
 까 까 머 리 찾 앓 네 방 앓 간 에 숨 었 네  
 빨 간 땡 기 찾 앓 네 기 등 뒤 에 숨 었 네

### 2. 소고

#### (1) 유래와 쓰임새



▲ 소고

‘소고(小鼓)’는 북 종류의 하나로, 작은 북을 뜻한다. 만드는 재료로는 대개 소가죽을 사용한 다. 지금의 소고처럼 일정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다 보니 크기와 모양새가 다 달랐으며 그 가짓수는 약 20여 개에 가까웠다. 손잡이도 나무 막대에 삼각형 모양으로 끈을 엮거나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손목에 걸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소고를 흔히 악기 연주의 기능보다는 춤과 놀이의 기능이 더 컸으므로 춤을 추기 위한 소품(무구)으로 사용되었다.

#### (2) 자세와 주법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소고의 손잡이 바로 위의 가죽을 받치도록 잡는다. 이때 손가락은 소고의 중심을 향하는 것이 아 닌 소고 테 쪽으로 뺀고, 엄지는 살짝 밑으로 내린다. 오른손으로는 소고 채의 끝부분을 가볍게 잡는다.

소고를 잡았을 때 손바닥 쪽의 면을 ‘앞면’이라 하고, 손등 쪽의 면을 ‘뒷면’이라 한다. 보통 채로 북 중앙을 치거나 테두 리 부분을 쳐서 소리 낸다. 기본적인 방법은 소고를 잡은 손과 채를 왼 손이 같은 힘으로 몸의 가운데에서 만나 박수를 치듯이 양손으로 같이 쳐서 소리가 나게 한다. 두 팔을 둥근 느낌으로 벌려 소고의 가운데를 치도록 하고 치는 순간 손 목의 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도록 한다. 가끔 채만 움직여서 소고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작으로는 제대로 치지 못한다. 반드시 두 손이 만나서 치도록 해야 소리도 크고 동작도 바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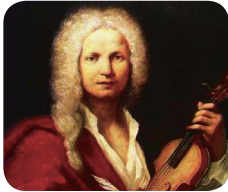
출처 양한, “2010 제4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워크숍 및 연수자료집: 실기연수(소고춤)”,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0, 35~36쪽.



##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악곡 해설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22~23쪽 |
| 제재명 | 귀로 듣는 봄   | 지도서 | 3학년 60~61쪽 |

### 1. 비발디(Vivaldi, Antonio Lucio / 1678~1741)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어려서부터 성 마르코 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과 작곡의 기초를 배웠다. 40여 편의 오페라, 500곡 이상의 협주곡을 비롯해 수많은 교회 음악, 기악곡을 작곡하였다. 특히 3악장 형태의 협주곡 형식을 완성했고 바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 작품으로는 ‘2개의 만돌린과 현악을 위한 협주곡’, 합주 협주곡 ‘조화와 영감’ 등이 있다.

### 2. 합주 협주곡 op.8 “사계” 중 제1번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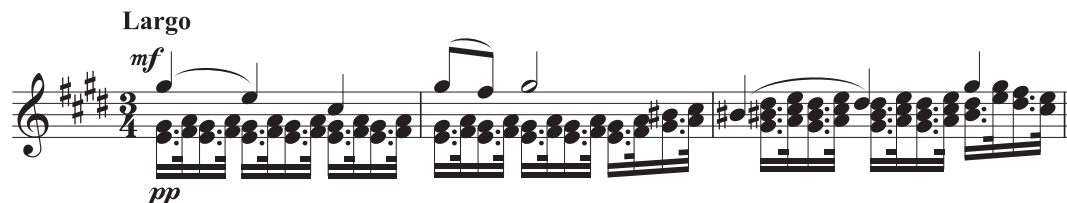
“사계”는 1725년 암스테르담에서 ‘화성과 창조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그의 12개의 합주 협주곡 중 첫 네 곡이다. 이 네 곡에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므로 이들을 합쳐서 “사계”라고 부르며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소네트(sonnet,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한 14행의 짧은 정형시)를 음악으로 그려 낸 일종의 표제 음악이다. 바이올린 독주와 현악 5부(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쳄발로가 대화하듯 응답하면서 진행된다. 각 곡은 3악장으로 되어 있고, 빠른 악장들 사이에 느린 악장이 하나씩 수록되어 있다.

출처 민은기, “서양음악사-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 2007, 224~235쪽.

|      |  |
|------|--|
| 제1악장 | 따뜻한 봄이 왔다. 꽃은 활짝 피고,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노래가 시작된다. |
|------|--|



|      |   |
|------|---|
| 제2악장 | 화창한 목장에는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꽃이 피어 있는 초원에 나무의 푸른 잎들이 정답게 속삭이고 양치기 소년은 개 옆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다. |
|------|---|



|      |   |
|------|---|
| 제3악장 | 봄의 햇살을 맞으며 물의 요정과 양치기 소년이 피리 소리에 맞추어 즐겁게 춤춘다. |
|------|---|



## 황의종의 “청산” 중 ‘봄비’ 악곡 해설

|     |           |     |            |
|-----|-----------|-----|------------|
| 단원명 | 1. 마음을 열며 | 교과서 | 3학년 22~23쪽 |
| 제재명 | 귀로 듣는 봄   | 지도서 | 3학년 60~61쪽 |

### 1. 황의종(1952~ )



1952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황의종은, 국악양성소(현 국립 국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국악 작곡을 전공하고 현재 후학을 양성하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방송과 특강, 연주회와 음반 출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작곡상, KBS 국악대상 작곡상 등을 수상했으며, 성악곡 “승무”, 관현악곡 “만선”, 가야금 독주곡 “청산”, 가야금 중주곡 “강 마을”, 가야금 합주곡 “금의 전설” 등의 작품이 있다. **출처** 황의종, “황의종 작곡집 2”, 부산대학교출판부, 2014, 214쪽.

### 2. 가야금 독주곡 “청산” 중 ‘봄비’

“청산”은 1983년 3월 김일로의 시 “봄” 중에서 ‘산기슭 휘돌아 앞에선 벗님, 봄비 맞아 젖은 옷에 청산의 향기’를 읽은 후 느낀 감흥을 ‘아지랑이’, ‘벗님’, ‘봄비’, ‘청산향’의 4악장으로 작곡하였다. ‘봄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출처** 황의종, “황의종 작곡집 2”, 부산대학교출판부, 2014, 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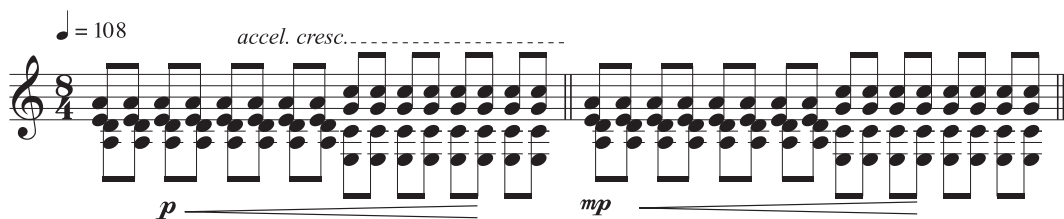
처음 ~ 약1분 28초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하여 글리산도를 하며 곡이 시작된다. 오른손은 고음부에서, 왼손은 저음부에서 소리 내어 상반된 음색을 연주하여 비의 영롱한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주법을 통해 긴장과 이완을 하며 다음에 나올 고조되는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다.



약1분 28초 ~  
약1분 50초

양손을 동시에 연주하여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마지막 음을 막으면서 마무리한다.



약1분 50초 ~ 끝

다시 느려졌지만, 음은 여러 개로 분산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